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 글꼴 분류체계 다양화 연구

A Study on Diversification of Hangul font classification system in digital environment

이현주(Lee Hyun-ju)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부교수

홍윤미(Hong Yoon-mi)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손은미(Sohn Eun-mi)

연세대학교 디자인기획팀

본 연구는 2001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로 수행되었음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2. 글꼴분류현황 및 문제점

- 2-1. 국내 한글글꼴개발 현황 조사 및 분석
- 2-2. 글꼴분류체계 및 한국글꼴개발원 분류 현황

3. 한국글꼴개발원 분류체계의 문제점

- 3-1. 분류기준
- 3-2. 탈네모꼴글꼴의 분류
- 3-3. 분류체계와 글꼴의 명칭

4. 글꼴분류체계개발의 다양화

- 4-1. 구조적 분류
- 4-2. 이미지 분류
- 4-3. 용도별 분류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要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한글글꼴을 다루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글꼴 선택의 기준 또한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한글 글꼴들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글꼴분류체계는 이러한 글꼴들을 비교분석하고 글꼴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글꼴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글꼴분류체계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모입글자라는 한글글꼴의 근본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한글 기계화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한글의 구조에 기반한 글꼴구조분류, 둘째, 공감각적이고 멀티미디어적 정보전달이 일반화되어 가는 실정에 맞추어 감성 이미지어와 글꼴의 시각적 이미지를 연관시키는 글꼴이미지분류, 마지막으로 매체별로 가독성과 주시성 등을 고려하여 글꼴의 용도를 제시하는 글꼴용도분류를 제안한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완성도 높고 다양한 글꼴의 개발과 문자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글꼴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글 글꼴의 특징과 사용환경에 기반하여 앞에 제시한 바와 같은 다각도의 분류체계를 세우고 이를 활용한 유기적인 글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다양한 한글글꼴의 개발과 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Abstract)

As the digital technology has improved, the numbers of Hangeul font users have increased and their individual needs and taste are diversified. Therefore new and various Hangeul fonts out of traditional form are developed and used. But under the present font classification system, it is hard to compare and analyze these various fonts. And the present classification system is hard to be the font user's guide for proper use of various Hangeul fonts.

For the better use of Hangeul font, to diversify the font classification system is needed. So we propose the development of these three classification standards. First, structural classification ba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 of Hangeul. Second, imag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visual images of each font. And third, usage classification based on the font's proper usage in various media.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typographically balanced fonts and for the suitable and effective use of the various font, we must try to build the font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diversified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build Hangeul font database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system. Through these studies, we can expect the development of good quality fonts and the better use of these fonts.

(Keyword)

Hangeul font, classification system, diversificatio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문자로 이루어진 정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글꼴의 중요성은 문자의 역사와 더불어 강조되어 오던 것으로, 이는 문자로 이루어진 정보를 그 내용과 수용자에 맞추어 디자인하여 전달함으로써 주시성, 가시성, 가독성, 감성적인 만족도 등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글꼴의 가독성, 용도, 이미지, 매체 적합성 등을 고려한 활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역할 분담이 뚜렷한 인쇄매체와는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나 정보의 서버와 유저가 되어 글꼴을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다량화된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글꼴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용자들의 주관에만 의존한 글꼴의 무분별한 사용이 디지털 환경에서 시각문화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컴퓨터의 범용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글꼴을 다루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글꼴 선택의 기준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글꼴의 올바른 보급과 사용을 지원해 주는 글꼴이름체계 및 분류체계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2개의 글꼴개발전문회사가 매년 꾸준히 한글 글꼴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글꼴의 현행 분류체계는 바탕체류, 돋움체류, 그래픽류, 굴림체류, 필사체류, 상장체류, 고전체류, 탈네모꼴체류, 기타체류 등 분류의 기준이 일관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발회사별로 글꼴 명칭이 일관되지 않고 글꼴분류체계의 기준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름만으로는 글꼴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없으며, 글꼴의 용도나 객관적인 이미지 등을 전달할 수 없다. 또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가진 글꼴분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글꼴의 체계적 분류가 어려워지며 유사하고 중복되는 글꼴이 여러 회사에서 개발되는 등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한글 글꼴의 개발 현황조사와 함께 한국글꼴개발원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글꼴분류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글꼴 사용 환경에 적합한 글꼴분류체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 및 단체의 글꼴관련 연구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동시에 개인의 주관에 의존해 글꼴을 선택, 사용해 온 일반사용자들에게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글글꼴 사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글꼴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삼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활용 범위를 확장시키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한글글꼴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박병천, '98 한글글꼴개발의 현황과 실태, 글꼴1998, 한국글꼴개발원, 1998, p.17

2. 글꼴분류 현황 및 문제점

2-1. 국내 한글글꼴개발 현황 조사 및 분석

한국글꼴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8년 당시까지 약 1200여종, 1999년 1년 동안에 약 230여 종의 한글글꼴이 개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0년 한 해에도 165종의 한글글꼴이 개발되었다고 한다²⁾. 또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생업체나 개인개발자 등을 고려해 볼 때 2002년 현재는 2000종이 넘는 한글글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한글글꼴 개발회사들이 제시하는 서체견본집에 따르면 회사별로 글꼴명칭 즉 서체명칭들은 분류체계가 서로 다르고 글꼴 호칭도 서로 다르다³⁾. 따라서 개발사별 개발 서체를 일관된 체계 하에서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글꼴의 구조적인 특징에 따른 개발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개발된 글꼴의 조형적 중복 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로 한국글꼴개발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글꼴중 이미지가 수록되어 있는 1211개의 글꼴 이미지들을 모두 수집하여 재분류하였다. 이 조사는 수집된 1,211개의 샘플을 수집, 비교 분석하여 조형적으로 유사한 글꼴끼리 재분류하여 하나의 글꼴군으로 묶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에 걸쳐 재검토되었다. 1차 분류기준은 글꼴의 틀로, 2차 기준은 획의 조형요소인 세리프, 3차 기준은 이미지로 하였으며 분석은 5명의 타이포그래피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수집된 샘플 1,211개를 구조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라 생각되는 네모틀/탈네모틀 여부와 획의 특징인 세리프/산세리프의 여부로 나눈 결과 네모꼴체가 탈네모꼴체보다 1.8배가량 많고 세리프가 없는 획의 글꼴이 세리프가 있는체보다 1.7배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틀과 획의 성격에 따른 글꼴재분류

| | 네모꼴 | 탈네모꼴 | 합 |
|------|-----|------|----------|
| 산세리프 | 448 | 315 | 763 |
| 세리프 | 335 | 113 | 448 |
| 합 | 783 | 428 | 총 1,211개 |

위의 표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이 뚜렷한 네가지 군 내에서 유사이미지의 글꼴끼리 재분류해본 결과 아래표와 같이 실제 글꼴의 개수에 비하여 서로 차별성을 가지는 글꼴이미지수의 비율이 10%~30% 정도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유사글꼴 재분류

| | 총갯수 | 유사글꼴군 갯수 | 이미지의 상이도 |
|----------|-------|----------|----------|
| 네모/세리프 | 335 | 39 | 12% |
| 네모/산세리프 | 448 | 64 | 14% |
| 탈네모/세리프 | 113 | 31 | 27% |
| 탈네모/산세리프 | 315 | 51 | 16% |
| | 1,211 | 185 | 15% |

2) 방병천, 한문희, 2000년도 한글 글꼴 개발 현황, 글꼴 2000, 한국글꼴개발원, 2000

3) 박병천, '98 한글글꼴개발의 현황과 실태, 글꼴1998, 한국글꼴개발원, 1998, p.25

위 조사는 글꼴샘플이라는 제한된 조건 내에서 이루어져 미세한 조형적 차이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개발되어있는 글꼴의 개수에 비하여 유사 이미지를 가진 글꼴이 많아 실제 글꼴의 다양성은 글꼴개수에 훨씬 못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2.2. 글꼴분류체계 및 한국글꼴개발원 분류 현황

글꼴분류체계란 글꼴을 형태별 혹은 쓰임새별로 구분하여 계통적으로 통일한 조직으로써⁴⁾ 수많은 글꼴들의 체계적 분류 선택이 가능해야 하며 글꼴의 전체적인 개발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이기성의 한글글꼴분류기준과 한국글꼴개발원의 분류체계가 있다.

이기성에 따르면 한글활자는 글자꼴 모양, 조판 방향, 글자 굵기, 장평, 용도, 크기, 혼합조판의 분류기준에 따라 나뉜다⁵⁾.

[표 3] 이기성의 한글활자의 분류기준

| 분류기준 | 종류 |
|-------|--|
| 글자꼴모양 | 본문체(바탕체, 붓체, 명조체), 네모체(돋움체, 훈민정음체, 고딕체), 제목체(헤드라인체), 디자인체(그래픽체), 서예체, 외국어표기체(외래어표기체), 쓰기체(필기체), 탈네모틀체(빨래줄체), 풀어쓰기체(푸러쓰기체), |
| 조판모양 | 세로쓰기, 가로쓰기 |
| 글자굵기 | 가는본문체(세명), 본문체(중명), 굵은본문체(태명), 돋보임본문체(건명) |
| 장평 | 정체, 장체, 평체, 사체 |
| 용도 | 교본체(교과서 본문체), 교내체(교과서 네모체), 교제체(교과서 제목체), 잡본체(잡지 본문체), 신본체(신문 본문체), 단본체(단행본 본문체) |
| 크기 | 9포(13급), 10.5포(15급, 5호), 12포(18급), 14포(20급, 4호) |
| 혼합조판 | 한글전용가로쓰기, 한자위주 세로쓰기, 한글한자혼용 가로쓰기 |

한편, 한국글꼴개발원에서는 바탕체류, 돋움체류, 그래픽류, 굴림체류, 필사체류, 상징체류, 고전체류, 탈네모꼴체류, 기타체류의 9가지 글꼴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류기준 중 한국글꼴개발원의 분류기준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글꼴개발원에서는 위의 분류기준에 맞추어 글꼴을 분류 수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분류기준을 통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의 공식적인 한글연구기관으로서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글꼴개발원의 데이터베이스는 각 글꼴개발회사가 글꼴의 분류주체로서 한국글꼴개발원이 개발한 분류체계에 맞추어 연도별로 개발된 자사의 글꼴들을 분류한 것을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분류주체가 다양해 분류기준에 맞춘 일관적 분류라 보기 어려우므로 글꼴분류예시를 통한 글꼴분류기준의 연구대상으로서 한계가 있다.

한국글꼴개발원의 데이터베이스에는 2002년 현재 총 12개 글꼴개발회사의 1436개의 글꼴이 수록되어있다. 이 글꼴 데이터뱅크에는 모리스, 산돌커뮤니케이션, 서울시스템, 씨스테크, 윤디자인연구소, 폰트뱅크, 초롱테크, 미드컴, 한국컴퓨터그래피,

휴먼컴, 이스트림, 모아시스템의 12개 글꼴개발회사의 개발글꼴들이 바탕체류, 돋움체류, 그래픽류, 굴림체류, 필사체류, 상징체류, 고전체류, 탈네모꼴체류, 기타체류의 9가지 글꼴분류에 따라 수록되어있다.

한국글꼴개발원의 글꼴분류체계는 한글글꼴들을 바탕체류, 돋움체류, 그래픽류, 굴림체류, 필사체류, 상징체류, 고전체류, 탈네모꼴체류, 기타체류의 9개의 카테고리 나눈고 있다.

「바탕체류」는 중국 명나라 때의 서풍(書風)을 따른 것으로 붓의 필력이 다듬어진 한글꼴의 대표적인 활자체들인 명조체들을 1992년 12월에 문화부(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용백)에서 바탕체라는 이름으로 순화한 글꼴들의 모임이다. 내리긋는 획은 굵고 건너긋는 획은 가늘어 균형이 잡혀 읽기 쉬우므로 서적이나 신문의 본문에 주로 쓰이고 글자꼴(자형)이 상하로 약간 긴 모양을 이룬다.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1] 바탕체류 예시 (신명조/한국컴퓨터그래피)

「돋움체류」는 1920년대 초에 등장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고딕체라고 불리던 활자꼴로 1991년 문화부에서 돋움체라고 하는 우리말 이름으로 지정한 글꼴들이다. 1960년대 사진식자 판짜기 네모틀에 맞춰 만들어진 활자꼴로서 서적이나 신문의 문장제목, 각종 표지판 등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글꼴로 기본줄기의 굵기가 일정하고, 줄기의 방향을 수직, 수평, 대칭사향으로 나타내며, 글자꼴을 정, 직사각형을 이룬다.

우리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2] 돋움체류 예시 (중고딕/서울시스템)

「그래픽류」는 최정호에 의해 창작된 한글그래픽체류의 모임으로 돋움체의 글자들 내 균형과 바탕체의 줄기의 운동감 및 모양을 절충하여 이루어진 글자꼴로, 모음의 가로선이나 세로선은 수직, 수평으로 같은 굵기로 나타냈으나 자음의 줄기들은 굵기와 방향의 변화를 주었으며 가로줄기나 이음줄기에 부드러운 휘임이 있다. 돋움체보다는 부드럽게, 바탕체보다는 딱딱하게 네모꼴로 나타낸 글꼴이다.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3] 그래픽류 예시 (신그래픽체/모리스)

「굴림체류」는 1970년 일본의 나카무라가 개발한 나야루체의 글자성격을 한글에 응용한 글자체이다. 둥근고딕 성격의 나야루체는 1962년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영문자 유로스타일(Eurostyle)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글자체류이다. 글자들 안 가득 글자를 채우고 글자의 속공간을 넓힌 것으로 기본줄기의 굵기나 방향은 돋움체와 비슷하나 줄기의 처음과 끝부분을 둥근 모양으로, 방향 바뀌는 부분을 등글게 나타낸 글꼴이다. 그

4)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원, 2000, p.40

5) 이기성, 한글스크린폰트 개발에 관한 연구, 글꼴2000, 한국글꼴개발원, 2000, p.145

리고 글꼴도 돌움체와 비슷하여 둥근 돌움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4] 굴림체류 예시 (굴림체/모리스)

「필사체류」는 붓이나 펜 등 필기구로 직접 쓴 듯한 느낌이 나게 부드럽게 나타낸 글꼴로 여러 글꼴들 중 가장 동적인 느낌이 나는 글꼴이다. 붓으로 쓴 듯 줄기의 굵기 변화를 주어 서예체인 궁체와 비슷하게 쓴 궁서체, 사인펜이나 연필로 줄기 굵기를 일정하게 보통 글씨 쓰기와 비슷하게 나타낸 글꼴들이 있다.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5] 필사체류 예시 (광수체/산돌커뮤니케이션)

「상징체류」는 글자의 줄기나 글꼴 전체 모양을 사물, 자연, 무형의 세계 등의 상징성을 나타내어 그리거나 써서 나타낸 글꼴로 네모꼴 또는 탈네모꼴로 나타냈다. 그래서 글꼴마다의 이름을 의미성을 부여하여 호칭하였다. 한국글꼴개발원에 따르면 과거 바탕체류를 많이 개발하였던 것에 비하여 최근 많이 개발되고 있는 글꼴류이다.⁶⁾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6] 상징체류 예시 (샤파이어M/윤디자인연구소)

「고전체류」는 조선시대에 출간한 각종 인쇄물에 나타나는 판본체의 글씨체를 그대로 나타내거나 그와 유사하게 변형시켜 만든 글꼴로 예스러운 맛과 멋이 나도록 개발한 글꼴이다.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7] 고전체류 예시 (남계연담/산돌커뮤니케이션)

「탈네모꼴체류」는 자소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 글꼴의 외부 규격이 되는 특이 네모꼴인 것을 네모틀형이라고 할 때, 탈네모꼴은 중성 및 중성의 위치가 네모틀 규격을 벗어나 조합이 되는 글꼴이다. 네모꼴체가 하나의 글자에서 받침유무에 관계 없이 글자크기를 똑같이 나타내는 반면 탈네모꼴체는 받침이 있는 글자는 없는 글자보다 세로폭을 받침 크기만큼 크게 서로 다르게 나타내는 글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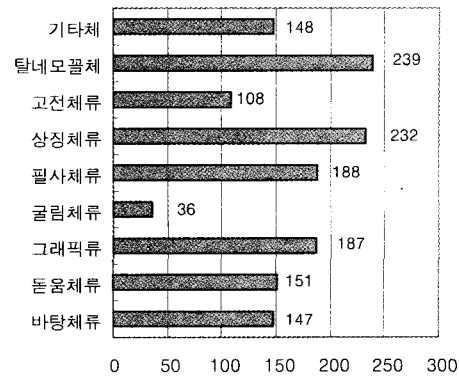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8] 탈네모꼴체류 예시 (휴먼신중간샘체/휴먼컴)

「기타체류」는 이상의 체 이외의 글꼴들로서, 위의 분류체계

중 어느곳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글꼴들을 포함한다.

총 1436개의 수집글꼴수 중 위의 분류체계별로 수록된 글꼴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글꼴분류체계별로 수록된 글꼴의 개수는 탈네모꼴체가 239개로 가장 많고 상징체류가 232개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굴림체류는 36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류체계는 가장 기본적인 한글글꼴의 분류체계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분류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명칭의 모호함으로 직관적인 의미전달이 어려운 것, 탈네모꼴류 분류의 문제, 글꼴의 모양에 치중한 일방적인 분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한국글꼴개발원 분류체계의 문제점

3-1. 분류기준

글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분류는 체계적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글꼴개발원의 분류체계는 획의 굵기 및 꺾임처리 등이 기준이 되어 있는 「바탕체류」, 「돌움체류」, 「그래픽류」, 「굴림체류」, 네모틀유무가 기준이 되어 있는 「탈네모꼴체류」, 틀유무에 상관없이 손으로 쓴 자연스러운 형태가 기준인 「필사체류」, 과거문헌의 나타나는 글꼴류를 기계화한 것이 기준인 「고전체류」, 개발단계의 모티브가 가진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상징체류」 등이 있다. 분류체계의 분류기준 자체가 모양, 용도, 시대 등 여러 가지이고, 분류의 한 기준인 모양 내에도 획의 모양, 틀의 모양, 모양의 의미 등의 기준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은 각 분류별로 적용의 우선 순위가 달라 같은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라 하더라도 비일관적이며 모호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은 분류주체 별로 자의적인 분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체류」라고 하는 모호한 분류체계를 발생시킨다. 또한 분류기준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은 자신이 원하는 글꼴을 찾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데이터베이스의 손쉽게 다양한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6) 박병천, 98한글글꼴개발의 현황과 실태, 글꼴1998, 한국글꼴개발원, 1998, p.16

7) www.fontcenter.org 한국글꼴개발원의 온라인 글꼴 데이터베이스 2002년 8월

[표 4] 글꼴분류체계 분류기준

| | 분류기준 | | | | |
|-------|------|-----|--------|-----|----|
| | 모양 | | | 용도 | 시대 |
| | 획모양 | 틀모양 | 모양의 의미 | | |
| 바탕체류 | ○ | ○ | | 본문용 | |
| 돋움체류 | ○ | ○ | | 제목용 | |
| 그래픽체류 | ○ | ○ | | | |
| 굴림체류 | ○ | ○ | | | |
| 필사체류 | | | 손맛글씨 | | |
| 상징체류 | | | 상징성 | | |
| 고전체류 | | | 상징성 | | ○ |
| 탈네모꼴체 | | ○ | | | |
| 기타체류 | | | | | |

특히 최근과 같이 글꼴 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체류, 탈네모꼴체, 필사체류들과 같은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자간과 장평 등이 다를 뿐 낱자의 형태가 거의 유사한 글꼴들이 중복 개발되어 서로 다른 글꼴류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는 조형적으로 거의 같은 글꼴이 다른 분류체계 안에 속해있는 예시이다.

**우리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10] 고전체류/ S사 궁서체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11] 필사체류/ H사 궁서체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12] 고전체류/ S사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그림 13] 상징체류/ M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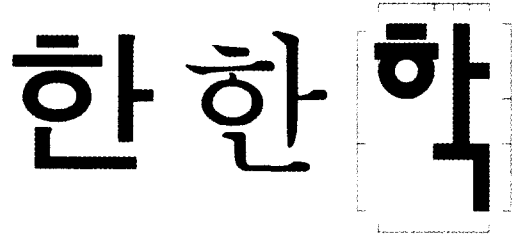
이는 글꼴개발의 현황을 조형적으로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와 개발시간의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관된 뚜렷한 기준이 없이 유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사글꼴들의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개발은 한글글꼴의 다양한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3-2. 탈네모꼴글꼴의 분류

한자와 일본의 영향권 그리고 로마자의 영향권을 거쳐오면서 일반적으로 네모틀이 한글꼴의 전형적인 틀 형태로 쓰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네모틀 한글꼴은 영문과 달리 자음과 모음, 받침을 일정한 네모틀에 넣기 때문에 한글기계화 과정에서 24자

가 아닌 3,000여 자를 만들어야 했다. 따라서 기계화에 용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독성, 판독성, 조형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 한글 창제원리 및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형태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능 위주의 한글꼴 기계화는 탈네모틀 한글꼴을 등장시켰다. 탈네모틀 한글꼴은 최소 24자의 쪽자만을 이용하는 조합형으로 기계화에 쉽고, 글꼴 자체의 판별력이 월등하여 가독성이 높다. 최초의 탈네모틀 한글꼴은 그 구조가 과격적이며, 네모틀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의 미감에 거슬리며 조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되었으나 '샘이깊은물체', '안상수체' 등의 실용화를 계기로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으며, 1990년대를 전후로 그에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늘날 구조적으로 탈네모꼴의 형태를 가진 글꼴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14] 네모꼴과 탈네모꼴 비교

(그림출처:안상수 · 한재준, 한글디자인,안그래픽스)

한국글꼴개발원 데이터베이스의 「탈네모꼴체류」에 수록된 글꼴은 239개로 전체 1436개의 글꼴 중 약 17퍼센트로 나타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글꼴 전체 중 글꼴샘플이 수록되어 있는 1211개를 대상으로 네모틀/탈네모틀의 구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해본 앞의 조사 결과, 형태적으로 네모틀에 속하는 글꼴은 783개, 네모틀을 벗어나는 글꼴은 428개로 탈네모꼴글꼴이 실제로는 전체글꼴의 약 35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글 네모틀 탈피를 추구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과 함께 글꼴개발환경이 발달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필사체류, 상징체류, 기타체류 등에 속하는 글꼴들 중에서 네모틀을 벗어난 다양한 글꼴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탈네모꼴의 분류는 획이라는 낱자적 요소와는 달리 글꼴의 온자 구조적 요소인 틀모양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써 한글이라는 조합형 문자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분류기준으로써의 틀은 좀더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네모꼴/탈네모꼴이라고 하는 네모꼴 위주의 틀 분류에서 벗어나 한글의 여러가지 구조적 틀을 수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3-3. 분류체계와 글꼴의 명칭

개발되는 글꼴의 명칭부여과정은 글꼴회사별로 각기 다르다. 윤디자인연구소와 이스트림, 모리스, 모아시스템의 경우 글꼴 명칭 앞에 회사를 상징하는 명칭을 따로 붙이지 않지만 산돌 커뮤니케이션(산돌-), 서울시스템(서울-, SS-), 소프트매직(sm-), 아시아폰트(Asia-), 초롱테크(CR-), 한국컴퓨터그래피(#-), 한양

정보통신(HY-), 휴먼컴퓨터(HM-)는 자체개발글꼴에 괄호안의 글자로 시작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폰트뱅크는 이철수 목판체를 제외하고는 (FB)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드킴은 (미드-)가 붙은 글꼴과 그렇지 않은 글꼴이 있었다⁸⁾. 이러한 회사별 구분 이외에는 글꼴명칭부여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꼴개발업체별로 글꼴을 비교 분석할 때 이름만으로는 글꼴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꼴개발상황의 종합적 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글꼴 명칭체계에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 외에도 글꼴개발원 분류체계의 명칭 또한 직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한글글꼴의 다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로 분류할 수 없는 글꼴들이 개발되면서 지금과 같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류기준이 비일관적이며 분류체계 명칭도 일관적이지 않다.

명조체류와 고딕체류는 가장 오래된 한글글꼴들로서 신문 등 초기 인쇄물에서부터 국정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글꼴들이다. 따라서 1992년 문화부에서는 이 두가지 분류체계를 그 용도가 많이 나타나는 명칭인 바탕체류와 돋움체류라는 명칭으로 각각 개칭하였다.

그래픽류와 굴림체류, 필사체류, 탈네모꼴체류는 획, 틀 등 글꼴의 형태적 특징에 의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고전체류는 과거문헌에 나타난 글꼴을 복원한 것이라는 특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상징체류는 각 개발회사별로 특정한 형태, 이미지 등을 모티브로 개발된 글꼴들의 모임으로써 개발의 모티브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분류체계가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축된다 하더라도 글꼴들과 분류체계의 명칭이 직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면 글꼴의 효과적인 활용에는 여전히 장애가 존재하게 된다.

4. 글꼴분류체계개발의 다양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PC사용자라면 거의 누구나 한글글꼴을 다루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정보유통망의 발달은 다양하고도 많은 문자정보를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로 유통시키고 있고 점차 증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 문자정보의 가시성과 주목성을 위하여 여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글글꼴의 개발의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여러 글꼴회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어오던 글꼴들 이외에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상징체류 등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⁹⁾. 또한 웹브라우저의 디폴트 폰트 문체를 개선한 웹폰트 등의 기술개발로 이미지화된 글꼴과 더불어 웹폰트로 구현된 텍스트 등 점점 더 다양한 한글글꼴들이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다. 이는 한글글꼴사용의 다양성을 넓히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8)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매킨토시 & 윈도우즈 서체모음집, 진솔북스, 2001,

<http://www.fontcenter.org/>, 한국글꼴개발원, 2002, 9월

9) 위의 책, p.16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 글꼴환경에 따라 다양한 글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글꼴 분류체계가 개발된다면 개발된 다양한 한글글꼴들의 활용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한국글꼴개발원의 글꼴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다양한 한글글꼴을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개발사별 검색, 자체 글꼴분류별 검색의 한정된 검색방식만을 제공하고 있어 한글글꼴을 다루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글꼴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기 힘들다.

개발된 글꼴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기준체계와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글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우선 디지털 시대 글꼴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화하여 개발된 글꼴분류체계는 비전문가인 사용자들이 개인의 주관에만 의존하여 글꼴을 선택,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교적 객관적인 글꼴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화된 분류기준을 가진 분류체계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글꼴개발상황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된 글꼴들의 비교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출시된 글꼴의 활용과 연구에 도움을 주어 글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글꼴의 중복개발을 피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되고 있는 수많은 한글글꼴이 각종 관련분야의 연구자, 글꼴개발회사 그리고 전문 혹은 비전문 글꼴사용자들에게 좀더 유용하게 사용될 뿐 아니라, 서로 형태가 유사하거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글꼴들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글글꼴 개발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첫번째 단계로 한글이라는 문자의 특성 및 한글사용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명확하고도 다양한 기준을 가진 분류체계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단계로는 이러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글꼴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수집, 분류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세번째 단계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글꼴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유기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발전시켜 최종적으로는 글꼴디자인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글꼴개발목적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꼴데이터베이스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첫 번째 단계로 글꼴분류기준의 다양화를 제안한다. 다음과 같이 다각도의 명확한 분류기준은 앞으로 개발될 한글글꼴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한 기존에 개발된 글꼴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4-1. 구조적 분류

한글은 닿자와 홀자, 받침자를 모아쓴다. 이러한 모임의 구조는 ‘가, 타, 너, 재, 예, 김’과 같은 가로모임, ‘고, 구, 요, 류, 스, 승’과 같은 세로모임, 그리고 ‘과, 늬, 죄, 왜, 켜, 관’과 같

은 섞임모임의 세가지이다¹⁰⁾. 한글은 닿자, 홀자, 받침자를 조합하여 하나의 덩이글자를 이루므로 이 낱소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한글의 구조는 한글의 창제원리와 관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글꼴의 기본틀은 한자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정네모꼴로 이어져왔다. 글꼴개발원의 글꼴들도 바탕체류와 돋움체류, 그래픽류, 굴림체류 등 비교적 역사가 긴 글꼴류에 속하는 글꼴들은 전통적인 네모틀 글꼴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된 네모틀을 벗어난다면 조합형글자인 한글은 단순히 네모/탈네모꼴의 네모꼴을 기준으로 한 분류 뿐 아니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탈네모꼴 글자꼴들도 기준선의 위치에 따라 첫닿자 기준선구조, 글꼴중앙 기준선 구조, 모임형식의 변화에 따른 구조변화 등 다양한 구조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글꼴들의 글꼴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지만 가로 기준선 및 세로기준선, 모임구조의 변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므로 한글 구조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한글글꼴구조분류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표 5] 한글꼴 구조의 예

| | |
|------|--|
| 글꼴예시 | |
| 네모틀 | <예시> 문화부바탕체/휴먼글꼴모음96-sg/휴먼컴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
| | 첫닿자 기준선구조 <예시> 휴먼가는샘체/휴먼글꼴모음96-sg/휴먼컴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
| 탈네모틀 | 글꼴 중간기준선구조 <예시> 울러M/국민서체/윤디자인연구소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
| | <예시> 중간안상수체/휴먼글꼴모음96-sg/휴먼컴 우리 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
| 모임구조 | <예시> 이상체 디자인 하 여 너 |

이러한 한글의 구조는 형태적으로뿐 아니라 한글의 기계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기계화의 효율성과 기능성, 각종매체에서 가독성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글꼴을 개발할 때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한글글꼴들의 구조적 분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분류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 안상수, 한재준, 한글디자인, 안그래픽스, 2002, p.28

4-2. 이미지 분류

정보화시대는 정보의 양과 가치가 변화함과 동시에 전달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종이에 쓰이거나 인쇄된 정보가 수용자에게 읽히는 형태로 주로 전달되었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 매체에서 정보전달은 점점 더 멀티미디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정보의 형태는 점차 공감각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웹 상에서 유통되는 파일의 형태는 2000년 말 이미지파일이 88.9%, 문서파일이 7.5%를 보인 반면 2002년 6월 현재 이미지파일이 94.6%이고 문서파일은 3.2%라고 한다¹¹⁾.

문자의 기능을 확대하여 디지털시대의 멀티미디어적 커뮤니케이션요소로 활용하는 일은 글꼴의 다양한 활용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글꼴의 시각적 이미지는 단지 시각적으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다음 연구들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감성을 전달한다.

이현주(1993)의 한글글꼴 24종(신문명조, SK태명조, SK중명조, 신명조, 신태명조, 태명조, 견출명조, 특견출명조, 고딕, 세고딕, 태고딕, 신태고딕, 그래픽, 신그래픽, 태그래픽, 세나루, 디나루, 빅체, 헤드라인A, 헤드라인B, 펜타일, 궁서체, 예서체)의 형태에 대한 이미지조사연구에 의하면 신문명조체는 부드럽고 약한 이미지, 빅체는 둔한이미지, 헤드라인A체는 힘찬 이미지, 예서체는 부드럽고 약한 이미지 등으로 글꼴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이미지가 집중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¹²⁾.

장동훈, 홍은정(2000)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글꼴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는 연령대, 성별, 직업별로 약간에서 아주 크게 다르다고 한다. 위 연구에서는 HY-체(한양정보통신)를 대상으로 삼아, 타이포그래피 감성의 판단기준축을 '여성적인-남성적인', '정적인-동적인'으로 하고 감성축도는 굵기를 기준으로 강한, 안정된, 보수적인, 규칙적인 등의 이미지 영역들로 나누었을 때, 네모꼴을 중심으로 샘물체, 센스체, 필기체 등과 같은 스타일이 강한 타이포그래피가 귀여운, 장식적인, 친숙한, 친근함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그래픽체, 신그래픽체와 같이 자유와 모음의 굵기의 차이가 있는 글꼴들은 세련된, 현대적인, 고급스러운의 영역으로 나누어졌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타이포그래피 기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문자정보의 내용과 이를 표현하는 글꼴의 시각적 이미지가 동시에 고려될 때 보편성, 이해 속도 등의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글꼴이미지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성언어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글꼴자극물과 형용사언어를 이용하여 이미지분류체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과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글꼴 이미지 형용사의 공통요인을 추출하여 글꼴이미지 형용사 공

11) 보도자료 2002. 07. 23 http://www.nic.or.kr/index_kr.html,

한국인터넷정보센터

12) 이현주, 한글폰트의 시각이미지연구 I, 대전전문대학 논문집 제 19호, 1993

13) 장동훈, 홍은정, 사용자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On-Line상의 타이포그래피 사용에 관한 연구, HCI학회지, 2000.2

간의 축을 설정, 각 글꼴들을 형용사 이미지 공간에 매핑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획의 굵기, 획의 각지거나 둥근 모양, 획의 길이 및 크기, 획의 구부러지는 부분의 형태, 세리프 유무, 획의 질감 등 날자조형요소와 자형, 자모유끼리의 간격, 점획끼리의 간격, 위치, 여백, 소말, 문자의 대소비교, 필력 등 온자조형요소¹⁴⁾, 또한 글줄 및 단락에서는 자간 및 행간, 단락 전체 내에서의 여백 등 글꼴의 조형적 요소와 감성이미지와와의 연관 관계를 규명한다면 앞으로 다양한 감성을 전달하는 글꼴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언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구축된 글꼴 이미지데이터베이스는 글꼴개발회사가 특정이미지의 글꼴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글꼴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에 관하여 여러 정보들을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정보의 이미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의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

4.3. 용도별 분류

글꼴은 그 문자 정보가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본문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읽혀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로 가독성이 높고 줄기가 가는 활자꼴로서¹⁵⁾ 바탕체류를 사용해 왔고, 제목용으로는 가독성에서는 바탕체보다 떨어지지만 눈에 쉽게 쓰이는 특징이 있어서 각종 표지판이나 신문, 서적 등의 돋보임 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¹⁶⁾ 돋움체류를 사용해 왔다. 또한 컴퓨터가 보급되면서는 비트맵 방식의 화면 디스플레이 환경에 맞추어, 모니터 상에서는 세리프가 없는 굴림체류와 돋움체류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난 개성있고 다양한 형태를 가진 글꼴들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글꼴들의 용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받지 않은 사용자들이 가독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관에만 의존하여 글꼴을 사용하여 시각적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가로쓰기 글꼴류에서 가독성, 돋보임성 등은 글자의 기준선의 연속성, 자간, 장평, 획굵기, 획질감, 획의 세리프유무, 틀 내부의 공간여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바탕체(본문용글꼴)/돋움체(제목용 돋보임체)의 단순한 용도 분류 뿐 아니라 위에 나열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인쇄매체, 디지털매체별 각각 용도별로 글꼴을 구별하는 기준을 세워 이를 분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은 습관적 미감의 영향으로 출판물과 모니터상의 본문에서 바탕체류, 굴림체류, 돋움체류 이외의 글꼴들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체별로 글꼴의 가독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글꼴을 용도별로 분류해준다면 새로이 개발되는 다양한 개성적인 글꼴들 중에서도 판독성과 가독성이 뛰어난 글꼴들이 본문용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글글꼴의 습관적 미감을 극복하고 다양한 글꼴의 사용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한글글꼴을 다루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글꼴 선택의 기준 또한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글꼴을 벗어난 다양한 글꼴들이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있는 한글글꼴개발원의 글꼴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되어 있는 글꼴샘플을 통하여, 다양한 개발사에 의해 개발되어 있는 글꼴들을 분석해 본 결과 조형적으로 유사하여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는 글꼴의 중복개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온라인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있는 글꼴데이터베이스의 글꼴분류체계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분류체계의 기준이 비일관적이므로 글꼴을 명확히 분류하기 힘들며 글꼴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기 어렵다. 또한 한글글꼴의 근본적 특징이자 한글 기계화의 중요한 변수인 글꼴의 구조적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꼴이름 및 분류체계의 명칭이 불명확하여 글꼴 비전문가의 글꼴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글꼴의 활용 및 완성도 높고 다양한 글꼴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개발자 중심 글꼴분류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글글꼴의 특징 및 일반 글꼴사용자의 요구에 기반한 다음의 세가지 분류기준 개발을 제안한다.

첫째, 구조적 분류는 로마자와 달리 닿자, 홀자, 받침자를 모아쓰는 한글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 글꼴끼리 분류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류는 한글의 기계화와 전통적인 네모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글꼴의 개발 및 한글의 조형적 활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미지 분류는 공감각적 정보전달을 위하여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글꼴끼리 분류하는 것이다. 이 분류체계는 이미지에 따른 글꼴의 적절한 활용을 지원하며 다양한 이미지의 글꼴 개발을 위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다.

셋째, 용도별 분류는 글꼴의 가독성, 주시성, 감성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글꼴을 제목용과 본문용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서체 비전문가들에게 글꼴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개별 프로그램환경에서 한글폰트 팔레트 내 글꼴분류 시스템 개발이다. 현재 폰트팔레트는 사용자 시스템이 보유한 폰트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어 사용자의 글꼴선택에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기존 폰트팔레트에 본 연구의 세가지 기준을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적용한 글꼴분류기능을 추가한다면 사용자의 폰트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폰트대치기준으로서의 활용이다. 현재 폰트 활용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용된 폰트가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로 데이터를 옮겼을 때 폰트가 유실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실된 폰트와 구조 및 이미지적으로 유사한 폰트로 자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폰트유실에 따른 글꼴활용

14) 박병천, 98한글글꼴개발의 현황과 실태, 글꼴1998, 한국글꼴개발원, 1998, p.27

15) 한글글꼴용어사전, 한국글꼴개발원, 2000, p.133

16) 안상수, 한재준, 한글디자인, 안그래픽스, 2002, p.72

의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웹글꼴데이터베이스의 분류 및 검색기준으로서의 활용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가지 글꼴분류기준은 개발자의 관점이 아닌 사용자의 관점에서 글꼴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 사용자 중심 데이터베이스의 검색기준으로 유용하다.

지속적 글꼴 수집 및 비교 분석과 글꼴분류기준 활용을 위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한글글꼴 개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글꼴의 활용도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글꼴1998, 한국글꼴개발원, 1998
- 글꼴1999, 한국글꼴개발원, 1999
- 글꼴2000, 한국글꼴개발원, 2000
- 안상수, 한재준, 한글디자인, 안그래픽스, 2002
- 컴퓨터사용자를 위한 매킨토시 & 윈도우즈 서체모음집, 진솔전자출판, 2001
- 이기성, e-book과 한글폰트, 동일출판사, 2000
- 한글의 새로운 시도, 안그래픽스, 1999
- 한글글꼴용어사전, 한국글꼴개발원, 2000
- 한글글자꼴 기초연구, 한국출판연구소, 1990
- 이현주, 한글폰트의 시각이미지 연구 I, 대전전문대학 논문집 제 19호, 1993
- 장동훈, 홍은정, 사용자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On-Line상의 타이포그래피 사용에 관한 연구, HCI 학회지, 2000. 2
- 이윤주, 색채 이미지에 기반한 패션 색채 계획 계획 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http://nic.or.kr>>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 행태, 2002. 7. 23
- <<http://www.fontcenter.org>> 한글글꼴개발원